

## EU 커피산업 동향\*

최양규 · 권나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2010년 유럽 커피 시장

커피는 17~18세기 계몽주의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던 시기에 ‘이성의 시대’를 상징하는 음료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럽인들은 오염되기 쉬운 물 대신 도수가 낮은 맥주나 와인을 음용하였는데 17세기 유럽의 평균 맥주소비량은 1인당 하루 3리터로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마셨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커피는 알코올음료와 달리 지적 활동을 자극하는 각성효과를 지녀 귀족, 성직자는 물론 작가, 과학자 등 이른바 지식인 계층에 큰 인기를 얻었다. 커피에 인기에 힘입어 1650년 옥스퍼드 대학 내에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생겼고, 1652년에는 당시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런던에도 커피하우스가 출현하여 이후 30년 만에 약 3,000곳으로 증가하였다.

유럽은 커피의 주된 수입국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커피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 자료에서는 2010/2011년 유럽연합의 커피 종류별 수입·수출량 등의 커피산업의 동향과 유럽의 각 국가별로 커피 산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 본 내용은 유럽커피연맹(European Coffee Federation)의 「European Coffee Report 2010/11」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ygchoi@krei.re.kr, 02-3299-4178).

1) EU 회원국이 증가하면서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 간의 전통적인 부문이 변화되고 있다.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이란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다소 임의적이다. 유럽커피연맹에서는 서유럽에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포함함.

### 1.1. 수입과 수출

2010년 서유럽의 그린커피<sup>2)</sup>(Green Coffee) 수입은 약 5,309만 자루(bags)로 2009년 5,267만 자루와 비교하여 2.4% 증가하였다.<sup>3)</sup> 서유럽 시장은 유럽연합(EU)이 장악하고 있다. EU 27개국 회원의 그린커피 수입은 EU 역내 무역을 포함하여 2009년 약 5,030만 자루에서 2010년 5,130만 자루로 2.1% 증가하였다. 지난해 보고서의 데이터와 비교해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유럽 연합통계청(Eurostat)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보고서가 공표된 후에 데이터를 수정하기 때문이다.

표 1 유럽연합의 그린커피 수입량 2008-2010

단위 : 톤 / 자루(60kg)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톤	자루	톤	자루	톤	자루
오스트리아	62,488	1,041,460	24,694	411,562	30,114	501,900
벨기에	356,537	5,942,280	307,279	5,121,317	305,026	5,083,758
불가리아	22,167	369,445	22,505	375,075	22,984	383,063
키프로스	1,718	28,633	1,350	22,495	1,606	26,758
체코	15,795	263,242	15,669	261,157	17,670	294,493
덴마크	33,670	561,165	34,214	570,238	37,180	619,672
에스토니아	42	705	87	1,452	128	2,138
핀란드	70,970	1,182,828	67,410	1,123,493	66,463	1,107,720
프랑스	239,273	3,987,877	258,629	4,310,477	246,413	4,106,880
독일	1,067,446	17,790,770	1,063,596	17,726,593	1,089,176	18,152,927
그리스	27,247	454,110	27,895	464,917	25,204	420,068
헝가리	12,932	215,528	12,920	215,338	13,114	218,563
아일랜드	3,085	51,412	2,473	41,210	2,485	41,418
이탈리아	448,496	7,474,933	448,909	7,481,810	460,968	7,682,805
라트비아	2,296	38,263	3,305	55,078	3,207	53,455
리투아니아	314	5,238	293	4,888	425	7,085
룩셈부르크	807	13,450	862	14,360	583	9,708
몰타	38	635	31	508	48	793

2) 갓 수확한 볶지 않은 상태의 커피임.

3) 데이터 자료의 변화 때문에 이전 보고서의 수치가 수정됨.

표 1 유럽연합의 그린커피 수입량 2008-2010 (계속)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톤	자루	톤	자루	톤	자루
네덜란드	65,803	1,096,708	72,437	1,207,278	73,755	1,229,250
폴란드	67,053	1,117,552	96,037	1,600,622	100,662	1,677,695
포르투갈	43,411	723,513	46,194	769,905	43,312	721,868
루마니아	22,247	370,777	22,102	368,365	21,298	354,972
슬로바키아	4,549	75,822	3,791	63,177	3,859	64,323
슬로베니아	9,358	155,973	10,257	170,953	10,677	177,947
스페인	248,253	4,137,553	242,434	4,040,570	253,259	4,220,982
스웨덴	109,636	1,827,265	106,755	1,779,253	116,652	1,944,205
영국	117,105	1,951,747	123,824	2,063,728	133,251	2,220,855
EU 27개국 합계	3,052,733	50,878,885	3,015,949	50,265,820	3,079,518	51,325,303
노르웨이	34,336	572,262	34,380	572,997	35,664	594,393
스위스	118,661	1,977,688	110,226	1,837,100	120,906	2,015,100
서유럽 합계	3,205,730	53,428,835	3,160,555	52,675,917	3,236,088	53,934,796
알바니아	6,921	115,349	7,330	122,167		
벨로루시	17,454	290,905	10,236	170,60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4,460	407,662	20,540	342,337		
크로아티아	24,320	405,326	23,643	394,049		
카자흐스탄	8,160	136,000				
마케도니아	8,184	136,402	8,776	146,261		
몰도바	1,622	27,026	1,663	27,714		
러시아	243,426	4,057,098	209,206	3,486,766		
세르비아	41,404	690,064	35,757	595,956		
터키	29,979	499,656	32,018	533,633	37,522	625,369
우크라이나	109,738	1,828,961	92,464	1,541,072		
중동부 유럽 합계	515,667	8,594,449				
유럽 총 합계	<b>3,721,397</b>	<b>62,023,284</b>				

자료 : Eurostat for EU; ICO, national statistics and F.O. Licht for other countries.

표 2 유럽연합의 그린 비-디카페인 커피의 수입량 2008-2010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자루	%	자루	%	자루	%
브라질	13,708,290	30.0	14,618,953	32.6	15,013,568	32.7
베트남	8,499,700	18.6	8,421,548	18.8	9,035,717	19.7
인도네시아	2,764,210	6.1	2,966,900	6.6	2,652,957	5.8
온두라스	2,257,012	4.9	2,390,300	5.3	2,589,337	5.6
페루	2,205,725	4.8	2,195,433	4.9	2,414,460	5.3
인도	1,599,763	3.5	1,297,863	2.9	1,814,927	4.0
우간다	1,996,485	4.4	2,156,870	4.8	1,751,752	3.8
에티오피아	1,463,378	3.2	1,321,158	3.0	1,684,067	3.7
콜롬비아	3,956,898	8.7	2,193,445	4.9	1,503,463	3.3
과테말라	1,008,697	2.2	784,720	1.8	908,432	2.0
엘살바도르	704,937	1.5	740,015	1.7	642,275	1.4
니카라과	568,010	1.2	525,138	1.2	605,377	1.3
케냐	497,440	1.1	640,640	1.4	529,535	1.2
카메룬	481,038	1.1	375,420	0.8	526,082	1.1
멕시코	444,922	1.0	494,148	1.1	480,572	1.0
코트디부아르	305,943	0.7	311,453	0.7	431,707	0.9
토고	132,225	0.3	154,802	0.3	412,385	0.9
파푸아뉴기니	587,900	1.3	448,067	1.0	405,475	0.9
중국	217,728	0.5	322,873	0.7	360,285	0.8
탄자니아	372,303	0.8	548,862	1.2	357,620	0.8
그 외 국가들	1,879,098	4.1	1,868,065	4.2	1,788,510	3.9
EU 27개국 (역내무역 포함)	45,651,703	100.0	44,776,675	100.0	45,908,500	100.0

자료 :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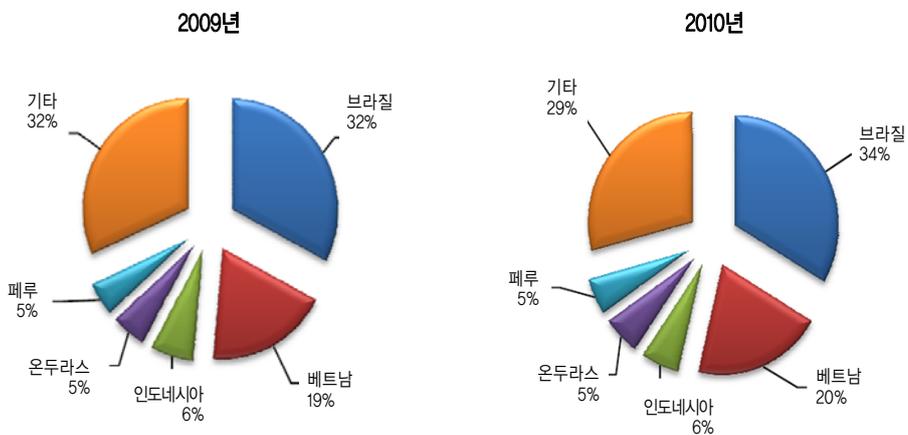
지난 몇 년 동안 브라질, 베트남 및 콜롬비아는 지속적으로 EU에 커피를 공급하는 상위 3개국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콜롬비아를 대신하여 EU에 커피를 공급하는 3위 국가가 되었다.

2010년 브라질은 EU의 그린커피 공급국가로서 자리를 유지하였다. 브라질로부터 EU의 수입량은 40만 자루 가량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변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더 많은 양인 61만 4,000자루 및 다소 높은 수입 점유율(0.9%p)로 두 번째로 EU에 커피를 많이 공급하였다. EU의 그린커피 수입에서 인도네시아의 점유율은 2009년 6.6%에

서 2010년 5.8%로 떨어졌다. 콜롬비아는 동 기간 약 69만 자루가 줄어든 양으로 2009년 4.9%에서 2010년 3.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9위 국가로 하락하였다. 이는 열악한 기상 조건과 국가 회복 프로그램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콜롬비아에 작물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통 오래된 커피나무는 장기간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는 새로운 나무로 대체된다. 그러나 새로운 커피나무가 완전한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린다.

2010년 EU의 그린커피 공급국가 5위는 온두라스와 페루였다.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콜롬비아로부터 공급 받은 양의 일부를 수출해왔다. 지난 3년간 양국의 수입은 양과 점유율에 있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EU 27개국의 그린커피 공급국가 Top 5



자료 : European Coffee Report 2010/11.

EU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커피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5년 중국은 10만 1,330자루의 커피를 EU 27개국에 공급하였다. 2006년에는 10만 7,270자루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6만 3,143자루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증가는 계속되었다. 2008년에는 21만 7,728자루, 이전해와 비교하여 33% 상승하였다. 2009년에는 32만 3,033자루가 증가하여 48% 상승하였고, 2010년은 3만 7,412자루, 약 12%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중국은 EU의 그린커피 공급국가로 20위권 안에 든다.

유럽연합통계청의 국가 통계에는 EU의 역내무역을, 그린커피 생산 국가에 공개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 EU간 무역은 수입된 커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3 EU 27개국에 수입되는 커피 종류

단위 : %

연도	2009	2010
아라비카 <sup>4)</sup> (Arabicas)	66.0	65.9
브라질 내추럴 <sup>5)</sup> (Brazilian Naturals)	35.6	36.5
콜롬비아 마일드 <sup>6)</sup> (Colombian milds)	7.6	5.2
아더 마일드 <sup>7)</sup> (Other Milds)	22.9	24.2
로부스타 <sup>8)</sup> (Robustas)	33.8	34.0
기타	0.2	0.2
총 합계	100.0	100.0

자료 : 유럽 연합통계청, 2011.

EU에 수입되는 커피 종류는 아라비카 그룹과 로부스타 등이 있으며 아라비카 그룹에는 브라질 내추럴, 콜롬비아 마일드, 아더 마일드 등이 포함된다. 2009년과 2010년에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전체 비율의 변화 폭이 적었으며, 아라비카 그룹 내에 브라질 내추럴 및 아더 마일드의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EU는 그린커피의 중요한 수입국일 뿐만 아니라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국이기도 하다. EU의 그린 디카페인(decaffeinated coffee)과 볶은 커피(roasted coffee)의 수입량의 변화 폭은 동일한 제품의 수출량의 변화 폭에 비해 완만한 편이다.

- 4) 세계 커피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커피 품종으로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임.
- 5) 브라질의 대표적인 가공법으로 체리 상태 그대로 햇볕에 건조시키는 방법임. 전 세계 생산량의 20~25% 를 차지함. 브라질, 에티오피아, 예멘 등에서 주로 산출됨.
- 6) 콜롬비아,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산출되는 커피로 세계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함. 보통 콩의 크기로 등급을 분류하며, 향기와 감칠맛이 좋음.
- 7) 대부분은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마йка 등 중남미 지역에서 산출, 전 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산지 해발고도, 비중, 크기 및 결정수로 등급이 분류되며, 적당한 향기와 가벼운 맛임.
- 8) 코페아 카네포라(Coffea Canephora)의 대표품종으로 세계 커피 생산량의 30~40%를 차지하며,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콩고임.

표 4 EU 27개국의 그린 커피 및 (중간)완제품 커피의 수입과 수출

단위 : 톤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그린커피 (09011100)	2,739,102	12,433	2,686,601	15,902	2,754,510	19,186
그린 디카페인 커피(09011200)	3,019	92,220	2,508	81,192	2,077	84,962
볶은 커피 (09012100)	21,181	71,029	24,548	70,279	29,156	77,030
볶은 디카페인 커피(09012200)	2,338	3,349	2,530	3,209	3,094	3,325
인스턴트 커피 (21011100)	43,816	39,046	41,061	39,225	43,720	39,166

주 1 : 유럽 연합통계청의 이전에 출간된 2008, 2009 자료를 개편함.

주 2 : 2008년 세관 코드는 21011100(건조 및 액체 형태의 커피 추출물)은 이전의 개별 코드 21011111(건조 커피 추출물)과 21011119(액체 에센스와 농축물)를 대체함.

자료 : 유럽 연합통계청, 2011.

2010년 그린커피의 재수출은 2009년에 비해 21% 증가하였고, 디카페인 커피의 수출은 5% 늘었다. 인스턴트커피의 수출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2010년 디카페인 커피의 수입은 2009년과 비교해 17% 감소하였으며, 인스턴트커피의 수입은 6% 증가하였다.

## 2. 국가별 연왕

### 2.1. 독일

#### 2.1.1. 그린커피의 수입

독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독일 연방 공화국의 비-디카페인(카페인 제거하지 않음) 그린 커피의 수입량은 1,820만 자루로 108만 9,174톤에 달했으며, 2009년 수입량 1,750만 자루, 104만 9,970톤에 비해 3.7% 증가한 양이다.

2010년 브라질은 독일의 최대 커피 공급 국가였으며, 이어서 베트남이었다. 2008년 콜롬비아는 상위 세 번째 공급 국가였으나, 2009년 8위, 2010년 11위로 계속 떨어졌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곡물 재배가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페루와 온두라스는 각각 상위 3, 4위의 공급 국가로 9.7%, 3.7%가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3만 654자루가 감소하였으나 상위 5위를 차지하였다.

표 5 독일의 총 커피 소비량

단위 : 자루/%

연도 원산지	2009		2010	
	자루	%	자루	%
브라질	5,994,070	34.25	6,313,612	34.78
베트남	2,960,774	16.92	3,384,823	18.65
페루	1,218,042	6.96	1,335,967	7.36
온두라스	1,090,636	6.23	1,130,833	6.23
인도네시아	1,394,239	7.97	1,093,585	6.02
에티오피아	758,266	4.33	928,393	5.11
우간다	644,987	3.69	594,328	3.27
엘살바도르	487,357	2.78	436,722	2.41
파푸아뉴기니	412,944	2.36	379,673	2.09
인도	157,534	0.90	371,783	2.05
콜롬비아	567,347	3.24	314,820	1.73
중국	244,281	1.40	278,797	1.54
과테말라	208,664	1.19	254,343	1.40
멕시코	232,364	1.33	163,023	0.90
케냐	197,587	1.13	162,203	0.89
부룬디	148,639	0.85	125,037	0.69
니카라과	100,581	0.57	104,487	0.58
카메룬	38,947	0.22	101,240	0.56
기타	642,234	2.50	679,238	3.74
총 합계	17,499,493	100.00	18,152,907	100.00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er Kaffeeverband.

표 6 모든 커피 종류의 수입과 수출

단위 : 톤

구분	관세 코드 (Customs Code)	2009년 수입	2010년 수입	2009년 수출	2010년 수출
그린 커피 (비-디카페인)	0901 11 00	1,050,505	1,089,174	174,023	197,994
그린 커피 (디카페인)	0901 12 00	2,099	833	123,951	130,431
볶은 커피 (비-디카페인)	0901 21 00	39,902	59,288	158,281	165,405
볶은 커피 (디카페인)	0901 22 00	755	1,185	9,188	8,218
건조 및 액체형태의 커피 추출물	2101 11 00	23,036	26,666	56,933	59,218
조제용 물질	2101 12 92	13,388	15,988	14,617	13,190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유럽연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디카페인 그린 커피는 이탈리아가 63.5%, 네덜란드가 16.3%, 벨기에가 14.3%를 수입하였고, 볶은 비-디카페인 커피는 폴란드가 28.5%, 이탈리아가 24.8%, 네덜란드가 12.8%를 주로 공급하였다. 커피 추출물은 주로 벨기에가 27.5%, 에콰도르 20.8%, 영국에서 15.0% 가량을 주로 공급하였다. 2010년 디카페인 그린 커피의 주요 수출 대상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로 각각 54.0%, 12.2%, 6.9%를 차지한다. 볶은 비-디카페인 커피는 주로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에 수출되었다. 2010년 볶은 디카페인 커피의 3대 수출 목적지는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각각 20.9%, 15.6%, 14.7%를 차지하였다. 커피 추출물은 주로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로 수출되었다.

### 2.1.2. 독일의 커피 소비

표 7 독일의 커피 소비량

단위 : 톤/kg

연도	그린 커피 전체 커피 소비량	1인당 커피 소비량
1953	75,417	1.5
1960	191,005	3.5
1965	271,100	4.6
1970	295,789	4.9
1975	344,999	5.6
1980	410,748	6.7
1985	419,306	6.9
1990	563,350	7.1
1991	590,101	7.4
1992	605,500	7.5
1993	601,200	7.4
1994	578,800	7.1
1995	564,600	6.9
1996	562,250	6.9
1997	551,480	6.7
1998	548,170	6.7
1999	549,520	6.7
2000	548,520	6.7
2001	549,530	6.7
2002	541,050	6.6
2003	532,030	6.5
2004	525,930	6.4
2005	502,835	6.1
2006	510,420	6.2
2007	512,020	6.2
2008	519,160	6.3
2009	527,160	6.4
2010	526,860	6.4

자료 : Deutscher Kaffeeverband, 2011.

시장 점유율 부문에서 에스프레소/카페 크레마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 가정용 소비는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30%를 에스프레소/카페 크레마 부문이 차지하며, 이 부문의 가정용 패키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가정용 패키지가 옥외에서 얼마나 소비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2011년 3월 22일, 독일 커피 연합의 회원은 커피 에이전트 및 브로커 7명, 그린커피 수입업자 12명, 창고 회사 12개, 디카페인업자 2명, 인스턴트커피 및 음료 생산자 8명, 커피 볶는 기계 57개사, 커피 연합 회원 21명, 후원 회원 20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독일 커피의 날(The German Coffee Day)은 매체에서 커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커피와 관련된 이벤트를 마련한다. 300개의 회사가 참여하며, 커피를 홍보하고 커피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펼친다. 독일커피협회는 2010년 국가 의료 전문 커피 교육 프로그램(Healthcare Professions Coffee Education Programme)을 진행하였고, 정보 자료는 6개 학술대회 및 박람회에 배포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건강과 관련하여 커피 효과에 대한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 2.1.3. 소비세

커피의 세금은 7%(소매)이다. 독일은 커피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를 적용한다. 볶은 커피는 kg당 2.19유로이고, 인스턴트커피는 kg당 4.78유로이다. 커피가 포함된 제품은 다음과 같은 소비세가 적용된다.

표 8 커피를 포함한 제품의 소비세

단위 : 유로

1kg 제품 당 볶은 커피나 인스턴트커피의 양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1kg당 10g~100g	0.12	0.26
1kg당 100g~300g	0.43	0.94
1kg당 300g~500g	0.86	1.91
1kg당 500g~700g	1.32	2.86
1kg당 700g~900g	1.76	3.83

자료 : Kaffeesteuergesetz(coffee tax law).

## 2.2. 오스트리아

### 2.2.1. 그린커피의 수입

2010년 비-디카페인 커피의 수입량은 50만 1,900자루(3만 114톤)에 달했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해 41만 1,562자루(2만 4,694톤)가 수입되었을 때 22% 증가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커피 부문은 주요 가공 처리 시설의 폐쇄됨에 따라 2008년 이후 그린커피 수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으며, 현재 재조정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표 9 오스트리아의 비-디카페인 그린 커피의 수입

단위 : 자루/%

원산지	2007		2008		2009	
	자루	%	자루	%	자루	%
브라질	49,897	4.8	46,027	11.2	47,673	9.5
인도	25,453	2.4	28,185	6.8	29,380	5.9
베트남	34,415	3.3	21,083	5.1	27,958	5.6
과테말라	3,985	0.4	6,183	1.5	8,530	1.7
페루	4,695	0.5	8,955	2.2	8,455	1.7
카메룬	15,493	1.5	11,325	2.8	6,173	1.2
코스타리카	9,232	0.9	4,978	1.2	4,653	0.9
라오스	0	0.0	0	0.0	3,515	0.7
온두라스	10,043	1.0	5,353	1.3	3,247	0.6
중국	2,912	0.3	2,132	0.5	2,208	0.4
에티오피아	1,213	0.1	1,248	0.3	1,662	0.3
니카라과	2,065	0.2	2,645	0.6	1,405	0.3
엘살바도르	2,642	0.3	4,090	1.0	1,135	0.2
코트디부아르	0	0.0	2,745	0.7	823	0.2
멕시코	0	0.0	2	0.0	432	0.1
기타	879,415	84.4	266,610	64.8	354,650	70.7
원산지 총 합계	1,041,460	100.0	411,562	100.0	501,900	100.0

자료 : 유럽 연합통계청.

오스트리아는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로 다른 EU국가들을 통하여 그린커피가 수입된다.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커피는 초기 원산지를 잃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타 원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이다. 동시에 위의 <표 9>는 단지 부분적인 사실만을 나타내는 주요 원산지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 2.2.2. 해외 무역

표 10 오스트리아의 국제 무역

단위 : 톤

구분	그린커피		디카페인 커피		볶은 커피		볶은 디카페인 커피		인스턴트커피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수입										
비-EU 원산지	9,222	8,949	0	4	1,837	2,167	153	187	559	603
EU 원산지	15,471	21,165	2,241	1,855	31,254	29,659	1,280	1,075	1,903	2,376
총 합계	24,694	30,114	2,241	1,859	33,091	31,826	1,433	1,262	2,462	2,979
수출										
비-EU 도착지	32	52	11	11	2,432	2,002	325	210	273	249
EU 도착지	1,360	471	29	29	16,054	18,495	86	321	252	378
총 합계	1,392	523	40	40	18,486	20,497	411	531	525	627

자료 : 유럽 연합통계청, 2011.

대형 생산 시설의 폐쇄는 국제 무역의 패턴을 변화하게 만들었다. 2009년과 2010년의 데이터를 보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패턴이다.

### 2.2.3. 커피 소비

오스트리아 전체 및 1인당 커피 소비는 최근 몇 년 동안 <표 11>과 같다.

표 11 오스트리아의 커피 소비량

단위 : 자루/kg

연도	전체 커피 소비량	1인당 커피 소비량
2001	1,012,664	-
2002	926,027	-
2003	719,572	-
2004	995,824	-
2005	772,066	5.63
2006	612,471	4.44
2007	846,816	6.12
2008	907,887	6.53
2009	885,716	6.35
2010	902,854	6.45

자료 : ICO, 2011.

유럽커피연맹 회원은 오스트리아 커피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볶은 커피의 가격에 세금 10%, 인스턴트커피에 20%가 포함된다.

## 2.3. 스페인

### 2.3.1. 그린커피의 수입

2010년 스페인은 그린커피를 이전 해보다 약 1% 감소한 양인 445만 8,317자루(26만 7,499톤)를 수입하였다.

표 12 스페인의 그린커피의 수입 1997-2010

단위 : 60kg 자루

연도	양
1997	3,490,161
1998	3,483,274
1999	3,633,701
2000	3,511,108
2001	3,772,666
2002	3,681,934
2003	3,785,850
2004	3,770,856
2005	4,020,600
2006	4,023,116
2007	4,370,450
2008	4,284,350
2009	4,252,616
2010	4,458,317

자료 : Spanish Coffee Federation, 2011.

표 13 그린커피의 국별 수입 동향

단위 : 자루

원산지	2007	2008	2009	2010
베트남	1,758,083	1,549,168	1,578,233	1,577,683
브라질	860,183	992,933	907,283	951,350
우간다	256,000	309,016	297,250	245,783
콜롬비아	319,116	323,650	231,066	201,267
코트디부아르	215,316	127,066	148,116	198,883
인도	171,183	164,600	115,250	142,500
독일	209,583	186,733	280,983	394,167
온두라스	79,916	107,100	65,116	80,567
니카라과	103,016	97,566	98,466	112,783
페루	47,850	62,666	31,349	38,071
기타	350,204	363,850	499,504	51,527
총 합계	4,023,116	4,284,350	4,252,616	4,458,317

자료 : Spanish Coffee Federation, 2011.

2000년 이후 베트남은 스페인의 전체 커피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 국가이다. 따라서 스페인의 전체 커피 수입의 62%는 로부스타(Robusta bean)이다. 로부스타는 주로 인스턴트커피 제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수치는 스페인이 유럽의 인스턴트커피 생산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린커피 수입량의 최대 30%는 다른 EU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인스턴트커피의 생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스턴트커피 산업에 흡수된다. 아라비카 그린커피 수입은 스페인 커피 수입의 37.29%를 차지하면서 전년도 35.98%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 2.3.2. 커피의 해외 무역

2010년 그린커피의 수입은 1993년부터 4.84%까지 증가하였으나, 볶은 커피의 수입은 인스턴트커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16.32% 가량 급 감소하였다. 그린 커피의 수출은 2010년 한 해 동안 10.86% 증가하였으며, 반면 볶은 커피의 수출은 3년 연속으로 17% 감소하였다.

표 14 커피의 해외무역

단위 : 톤

커피형태	수입			수출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그린커피	257,061	255,157	267,499	17,251	25,632	28,416
볶은 커피	16,548	17,436	14,593	10,048	7,361	6,080
인스턴트커피	8,159	8,081	9,780	22,621	22,008	29,795

자료 : Spanish Coffee Federation, 2011.

### 2.3.3. 커피의 소비

그린 커피의 수입은 2008년과 2009년에 약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커피 소비는 연간 1인당 4kg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많은 그린커피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인스턴트커피 수출의 증가를 위함이다. 같은 이유로 스페인의 그린커피 순 수입(수입-수출)은 전체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 감소하였다.

스페인 커피 시장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다른 식음료 제품만큼은 아니다. 캡슐/포드 커피 부문의 빠르고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 가정의 소비에서 4% 가량 전반적인 증가가 보이지만 옥외에서는 8% 감소하였다. 가정에서 볶은 커피의 소비

가 2.5% 증가한 반면, 옥외에서는 7.10% 감소하였다. 인스턴트커피에 대해서는 가정 소비는 10.50% 늘었고, 옥외 시장에서는 11.39% 떨어졌다.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커피 시장의 분포에 대해서는, 볶은 커피는 시장의 81.47%를 차지하고, 인스턴트커피는 전년도와 동일한 추세에 따라 18.53%를 차지하였다. 커피 소비의 다른 형태를 살펴보면, 블렌드 커피(Blended Coffee: 내추럴<sup>9)</sup>과 토레팩토<sup>10)</sup>(torrefacto)의 혼합 형태)는 전체 소비의 38.11%를 차지한다. 내추럴 커피(설탕 무 첨가)는 시장점유율의 39.39%이다. 옥외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길 때, 스페인 사람들은 토레팩토나 내추럴 커피가 혼합된 것을 선호한다.

볶은 커피의 소매가격은 2010년 12%까지 증가하였다. 스페인커피연맹(The Spanish Coffee Federation)은 전체 스페인 커피 생산과 유통의 약 90%를 차지하는 커피 산업 내에서 3개의 국가 단체와 연합하면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 3개의 단체는 첫 번째, 스페인 커피 로스터 연합(Spanish Coffee Roasters Association, AETC)으로 커피산업의 85% 차지한다. 두 번째, 스페인 그린 커피 연합(Spanish Green coffee Association, ANCAFE)으로 커피산업의 92% 차지한다. 세 번째, 스페인 인스턴트 커피 제조 연합(Spanish Soluble coffee Manufacturers Assn, AEFCS)으로 커피 산업의 100% 차지한다.

#### 2.3.4. 전국 커피와 보건 프로그램

스페인커피연맹은 2008년 1월, 커피와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건 전문 교육을 위해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s, ICO)의 보건 전문의 커피 교육프로그램(Health Care Professions Coffee Education Programme, HCP-CEP)을 실시한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는 병에 대하여 커피 섭취량을 줄이라고 환자들에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동 교육의 목표는 커피가 보건식(healthy diet)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스페인커피연맹은 지역 보건(General Practitioner), 영양사, 신경과 전문의 및 심장병 전문의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의학용 데이터베이스에 전자메일로 배포하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였고, 커피와 신경에 관한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커피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페인 신경학회와 스페인 가정 및 지역사회 의학협회(Spanish Family and Community Medicine Society, SEMFYC)에서 조직한 학술대회

9) 가장 전통적인 가공 방식으로 체리를 수확하여 물로 가볍게 세척한 후 체리를 분리하지 않고 넓은 땅에 펼쳐놓고 말림.

10) 스페인과 프랑스,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로스팅 방식으로, 로스팅하는 도중에 일정량의 설탕을 넣어주는 것이 특징임.

에 참석하여 커피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스페인커피연맹은 2008년부터 스페인영양재단(Spanish Nutrition Foundation)과 협력하여 연구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에는 저널과 학회지 등에 커피와 알츠하이머병, 커피와 파킨슨병, 커피와 암, 커피와 당뇨병, 커피와 간 기능 등 여러 기사를 발표하였다. 2010년에는 SEMFYC에서 논문 ‘커피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발표하였다.

## 2.4. 프랑스

### 2.4.1. 수입

2010년 프랑스의 총 비-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417만 6,542자루(25만 593톤)이었다. 이는 2009년 수입된 431만 477자루(25만 8,629톤)보다 3.1% 가량 감소한 양이다. 양과 비율의 측면에서 주요한 그린커피 공급 국가는 다음과 같다.

표 15 프랑스의 그린 및 비-디카페인 커피의 원산지 수입

연도 원산지	2008		2009		2010	
	자루	%	자루	%	자루	%
브라질	238,176	42.3	103,593	17.9	95,630	16.1
베트남	37,251	6.6	33,808	5.8	40,247	6.8
에티오피아	12,447	2.2	22,843	3.9	31,408	5.3
온두라스	30,327	5.4	20,045	3.5	29,382	5.0
콜롬비아	44,441	7.9	22,831	3.9	18,592	3.1
인도네시아	9,398	1.7	12,332	2.1	12,233	2.1
토고	34,541	6.1	10,713	1.9	11,163	1.9
페루	9,883	1.8	3,742	0.6	7,278	1.2
카메룬	3,836	0.7	11,771	2.0	5,137	0.9
코트디부아르	2,235	0.4	4,150	0.7	4,450	0.8
우간다	2,976	0.5	857	0.1	4,370	0.7
멕시코	-	-	-	-	2,990	0.5
과테말라	5,021	0.9	3,873	0.7	1,407	0.2
기니					1,432	0.2
인도	6,600	1.2	2,323	0.4	1,407	0.2
니카라과	28,822	0.7	44,945	1.0	42,402	1.0
중국	19,193	0.5	24,575	0.6	32,265	0.8
엘살바도르	40,492	1.0	56,520	1.3	28,040	0.7
마다가스카르	56,592	1.4	19,972	0.5	24,282	0.6
코스타리카	30,152	0.8	18,882	0.4	22,222	0.5
콩고민주공화국	11,990	0.3	30,053	0.7	17,580	0.4
EU내 국가	1,387,408	34.8	1,309,762	30.4	1,325,523	31.7
기타	103,448	2.6	153,030	3.6	106,463	2.5
총 합계	3,987,877	100.0	4,310,477	100.0	4,176,542	100.0

자료 : 유럽연합통계청, 2011.

2010년 브라질은 1위의 커피 공급국가 자리를 지켰으나, 시장 점유율 및 판매량은 2009년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베트남의 경우도 이와 같다. 에티오피아는 2009년 여섯 번째 공급국가에서 2010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다. 다른 시장의 경고문과 마찬가지로 거의 1/3의 커피가 대형 커피포트와 함께 다른 EU 회원국(특히 벨기에, 독일)을 거쳐 프랑스로 들어온다. 통계상으로 이 커피는 정체성을 잃고, 원산지 출처를 더 이상 정할 수 없게 된다.

#### 2.4.2. 모든 커피의 해외 무역

<표 16>은 가공된 커피의 수출(생두도 동일함) 현황을 보여준다.

표 16 그린커피,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의 국제 무역

단위 : 톤

구분	그린커피		그린 디카페인 커피		볶은 커피		볶은 디카페인 커피		인스턴트커피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수입										
비-EU 원산지	180,043	171,061	95	197	10,159	12,324	1,444	1,686	1,404	1,827
EU 원산지	78,586	79,531	7,717	11,193	74,947	82,627	2,287	2,066	11,033	11,553
총 합계	258,629	250,593	7,812	11,389	85,106	94,951	3,731	3,751	12,438	13,380
수출										
비-EU 도착지	351	612	1,241	49	1,804	1,703	71	59	4,236	4,108
EU 도착지	3,117	1,704	3,626	2,757	13,083	14,446	618	931	8,856	10,296
총 합계	3,468	2,315	4,868	2,806	14,887	16,150	689	990	13,093	14,405

자료 : 유럽연합통계청, 2011.

2010년 모든 가공된 커피의 수입은 2009년과 비교해 증가한 편이다. 그린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는 45% 가량 대폭 증가하였으며, 볶은 커피는 12%, 인스턴트커피는 8%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볶은 디카페인 커피는 1% 가량 약간 증가하였다.

가공된 커피의 수출은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린 디카페인 커피는 42% 감소하였고, 볶은 커피 8%, 볶은 디카페인 커피 44%, 인스턴트커피가 10% 가량 늘었다.

### 2.4.3. 커피 소비량

표 17 프랑스의 총 커피 소비량

단위 : 자루/kg

연도	전체 커피 소비량	1인당 커피 소비량
2000	5,402,081	-
2001	5,252,819	-
2002	5,525,715	-
2003	5,393,680	-
2004	4,929,117	-
2005	4,787,358	4.7
2006	5,277,586	5.2
2007	5,627,754	5.5
2008	5,151,567	5.0
2009	5,676,750	5.5
2010	5,903,499	5.7

자료 : ICO, 2011.

에스프레소 제조 방법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매년 이 방식으로 167억 잔의 커피가 소비된다. 볶은 커피 매출의 80%는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발생한다. 나머지 20%는 카페/호텔/레스토랑, 기타 집박, 자동판매기 및 전문점에서 나누어 발생한다. 디카페인 커피의 점유율은 소비의 7%로 추정된다. 또 윤리적으로 거래되고,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커피의 점유율은 2.5%로 추정된다.

## 3. 전망

유로존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커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남유럽 국민들이 실업과 임금삭감, 인상된 세금, 가계 부채에 따른 부담으로 커피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커피 수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남유럽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은 거의 손님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고, 특히 유럽에서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올해 들어 18% 상승되면서 유럽 내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부스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유럽인들이 카페 출입을 줄이면서

---

아라비카 원두 대신 로부스타를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유럽 국가에서 커피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EU 전체의 커피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재정불량국가인지 우등국가인지에 따라 수입량이 엇갈린다.

유럽 재정불량국가 중 하나인 스페인은 같은 기간 커피 수입량이 6.6% 감소하였고 또 다른 문제국가인 이탈리아 역시 2.9% 감소하였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커피 수입은 각각 0.4%,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2011. “커피 한 잔에 담긴 사회경제상”.  
European Coffee Federation. 2011. “European Coffee Report 2010/11”.  
The Wall Street Journal. 2012. “Europeans Cut Back on Coffee”.

## 참고사이트

ese consortium. (<http://www.esiconsortium.com>)  
국제커피협회 ([www.ico.org](http://www.ico.org))  
미국농무부(USDA) ([www.fas.usda.gov](http://www.fas.usda.gov))